

담양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주거복지 향상 집중

4개 사업 통해 저소득·농어촌 장애인·독거노인 주택 개보수 지원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70가구 대상 사업비 5억 투입

담양군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2021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6억 1,800만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 ▲독거노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열악한 주거 취약 계층을 발굴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및 무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와

가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대상은 70가구, 사업비는 5억 원이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증·개축, 리모델링 및 수장, 난방, 설비 사업과 실내 화장실 설치사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예산은 8,500만 원이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비상연락 장치, 욕실, 부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동 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을 지원한다.

'독거노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취약한 주택 단열 상태 개선을 위해 노후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을 내용으로 가구당 1백만 원으로 10가구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군은 3월부터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4월부터 증·개축, 리모델링,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 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 개보수 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꿀잠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흑하량 상추를 재배하고 있다.

강진군, 정신건강프로그램 '꿀잠 프로젝트'

수면장애, 불면 및 우울감 완화 등 정신건강 개선 기대

강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면장애, 불안, 우울감을 호소하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비대면(1:1)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꿀잠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꿀잠프로젝트'는 보건진료소 이용 50세 이상 마을 주민 중 수면장애가 있는 70여 명을 대상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상추를 직접 기르고 섭취하여 수면장애 개선을 유도하는 물론, 자신에게 맞는 신체활동을 찾고 활동량을 차츰 늘려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재배하는 상추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토종 상추 최근 기능성 채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흑하량 상추'이다. 수면유도물질인 락투신이 일반상추에 비해 124배가 높아 수면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소는 강진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상추 종자를 육묘한 후 4월 중에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결식 우려 어르신에 대체식 지원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읍면별로 결식 우려 취약계층 어르신 1,300명을 선정하여 작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대체식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체식은 라면, 김, 즉석 국, 통조림, 두유 등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되며, (사)대한노인회무안군지회와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대상자 집으로

비대면 택배 배송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70명에게도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생활관리사 및 비대면 택배 배송으로 식사를 중단없이 제공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주)알이, 마스크 600개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후원

마스크 구매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 등에게 전달 할 예정

(주)알이(대표 최민선)에서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유선)에 KF마스크 600개를 후원하였다.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설 기관인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전달받은 마스크 600개를,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 그리고 저소득 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사각지대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전달

할 예정이다.

(주)알이-최민선 대표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이, 뜻 깊은 나눔문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장애인세대에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유선 센터장은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저

소득층 장애인 가정에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08년 개소하여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긴급지원 등, 사례 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장애인복지법 제 30조의 2항-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 기관, 광주광역시 지정)

최윤희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리를 두어 주세요!